

월요논단



현 해 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과일 당도를 높이는 것은 모든 과수 농가의 꿈이다. 똑같은 감귤 품종이고 똑같이 땅을 흘리고 비료를 주는데 당도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쟁이, 귀동냥, 농약방 농법은 절대로 원하는 당도를 얻기 힘들다. 원리를 잘 아는 농가만이 당도를 높인다.

당도를 높이는 첫 번째 길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정도 잎과 과일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정해야 한다. 성목이삭한 감귤원이 밀식 감귤원보다 당도가 높은 이유다.

내년 감귤 당도를 어떻게 높일까

간벌도 하지 않으면서 당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한겨울 그늘에 숨어 있으면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바보다. 간벌하지 않은 밀식 감귤원 과수원은 전세계에서 제주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간벌을 해야 당도를 높이고 가격을 잘 받는다.

비료로 당도를 높이려면 마그네슘(Mg, 고토) 비료의 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영양제로 당도에 욕심내는 감귤농가는 손흥민이 먹는 비타민만 먹으면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된다는 장사꾼 말에 속는 거다. 따라쟁이, 귀동냥 농법으로 수십년 동안 당도를 높인다고 사용한 골분, 제1인산가리가 장맛속에서 퍼진 과장된 헛소문이라는 실상을 알면 허망할 것이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다. 48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생겼다. 20억 년 전에 다른 원시세포를 삼키는 진핵세포가 탄생했고, 18억 년 전에 동물과 식물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동물과 식물은 먹이가 다르다. 동물은 다른 생명체를 먹어 에너지를 얻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든다. 식물은 햇빛을 먹고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를 만든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햇빛을 먹고 당을 만든다.

헴(Heme) 구조는 포르피린 고리에 단백질이 합성된 모양이다.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다. 동물의 헴구조 중심에는 철(Fe)이 들어 있으며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른다. 식물의 엽록소에는 헴구조 중심에 마그네슘(Mg)이 들어 있다. 즉, 동물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식물의 엽록소는 햇빛을 받아 당을 만든다.

결국, 감귤 당도를 높이는 것은

햇빛과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엽록소의 마그네슘에서부터 시작된다. 토양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으면 식물은 뿌리가 저절로 흡수하여 엽록소를 만들고 햇빛을 먹고 당을 만들어 낸다. 토양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이 수가 없다. 그래서 높은 당도를 수확하는 능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하고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당도를 높이기 위한 과수용 비료는 마그네슘을 2~3% 혼합한다. 용성 인비에는 12%가 있다. 마그네슘이 없는 슈퍼21, 골분, 제1인산가리는 본래 당도가 목적이 아닌 비료다.

내년에 감귤 당도를 높이려면 햇빛이 나무에 골고루 들게 하고, 사용하는 비료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감귤 당도를 높이는 첫 번째 조건이다.

사설

중산간 개인오수시설 제대로 관리해야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한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된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분별 설치되는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산간지역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에 따라 이같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도

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도 공공하수도 연결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매년 급증하면서 관리 부실해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된다.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분별 설치되는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산간지역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에 따라 이같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도

감귤 경쟁력, 당도만이 유일한책이다

본격 감귤 출하기를 맞아 가격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린다. 올해산 감귤이 생산량 감소에다 품질도 괜찮다는 평가에 가격 기대치를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은 소비침체에다 따뜻한 날씨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감귤 경쟁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처지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매사들은 지난 1일 감귤데이 행사를 앞뒀. 찾은 오영훈 도지사와 농업 관계자 등에게 맛좋은 감귤 출하를 한결같이 강조했다. 감귤이 주 소비자인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맛만 좋으면 경쟁력 있다는 주문이었다. 실제로 이날 경매서 5kg 1박스에 겨우 3000원인 감귤이 나와 맛없으면 가격도 형편없다는 사례를 보였다. 최근 감귤명인 농가의 하우스 감귤 3kg 1상자 7만5000원이란 역대 최고값 기록과 크

시장 트렌드에 맞춰 높은 당도의 상품 출하시 당연 가격도 높다는 얘기다. 오 지사가 이날 “농가에 계속 고품질 생산을 장려하지만 변화 속도를 못 느껴 무력감이 든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이다.

도는 열대과일, 수입과일이 시장을 무섭게 ‘점령’하는 상황에서 감귤정책의 대전환을 선택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 감귤정책이 일정 당도 이상만 출하토록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당도 기준 이하 감귤은 전량 가공용이나 도내 처리하고, 중·장기적으론 해당 품종 폐원도 추진해야 한다. 노지감귤이 경쟁력 없다가 만감류나 하우스감귤로 전환하는 추세라 또다른 과잉생산 부작용도 우려할 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소비자들은 맛 있어야 사 먹고, 재구매도 하는 현실에선 당도 중심에 대비된 것이다. 감귤이 소비

열린마당

골든타임 살리는 ‘119안심콜’



김 미 경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사고는 늘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사람을 당황시키고 사고를 좁게 만든다. 또한 심장·뇌 질환 같은 질환들이 급작스럽게 발병한다면 극심한 통증 또는 마비로 환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사고의 초기 단계에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환자의 정

보를 사전에 파악해 응급상황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알고 출동하는 소방 서비스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해 특히 뇌졸중, 협심증 등 지병이 있는 대상자, 홀몸노인 및 임산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인터넷을 통해 119 안전신고 홈페이지(<http://u119.nfa.go.kr>)에 접속 ▷상단 메뉴에서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안심콜 서비스 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 클릭 ▷정보 입력을 하여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기본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쉴새없이 오며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19로 뜸했던 ‘김장나눔’ 활기

도내 단체, 사랑의 김장나눔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뜸했던 여러 기관·단체의 김장나눔이 올해는 활기.

농협서귀포시지부와 (사)고향주부모임 서귀포시지회, (사)농가주부모임 서귀포시연합회 회원들은 이달 1일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가 노인지원센터 등에 전달했고, 고향주부모임 제주도지회는 최근 14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도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전달. LH 제주지역본부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난 2일 LH 임대주택 임주민을 위한 김치를 담가 327세대에 나누기도.

김장나눔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모일 수 없어 김장을 못담갔는데, 올해는 김장을 담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 수 있어 뿌듯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남원읍, 민원편의 키오스크

○…서귀포시 남원읍이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민원내용에 따라 번호표를 발행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며 눈길.

남원읍은 방문 빈도가 높은 민원·재무·산업 3개팀 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중이며, 민원 사항별로 각각 번호표를 발행하면 소관 팀에서 순서를 안내하는 음성과 안내판에 번호를 제공해 민원인들이 쉽게 해당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며 만족도를 제고.

현존정 읍장은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민원인들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민원 안내 행정 도우미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파명윤씨 탈레(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5일

아들 오영남 며느리 황정순
영수 이용진
윤주 김순례
영환 강은숙
딸 오영섭 사위 김현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태희(국가유공자·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2월 5일

아들 강호준 며느리 김금숙
창윤 문혜경
창주 오복선
딸 강미자 사위 박혁진
복용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안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택배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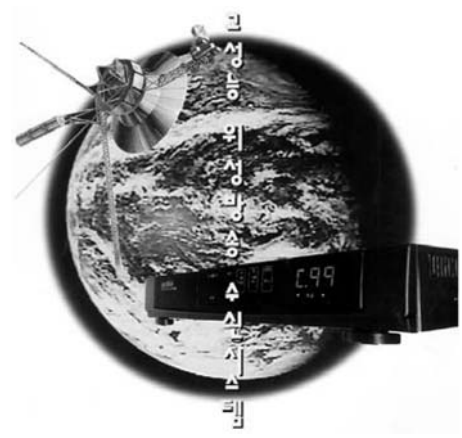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